

오락가락 민주 이번엔 경선일정 연기

순천시장 '체육관경선' 논란

광주 서구청장·광산구청장 후보 결정 17일로 미뤄

전남지역 2~3일 늦출듯 ... 도지사 경선 영향 주목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이 연기된 데 이어, 전남 도내 시장·군수 후보 경선일도 일부 연기될 것으로 보여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천안함 침몰에 따른 국민정서 등을 앞세우고 있으나 일부 후보 측의 연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연기가 경선 일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애초 11일로 예정됐던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을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천안함 사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고, 오는 10일로 예정된 광주시장 경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을 연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며 "북구청장 경선은 예정대로 18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 이후 동구청장 경선을 지난 3일 실시한 바 있어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일정을 연기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광주시당 관계자는 "서구청장 경선의 경우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져 시장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벌이는 것이

경선일정 연기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일정도 애초 계획과 달리 연기될 것으로 예상돼 도지사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 연기를 놓고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도지사 후보 경선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지역 22개 시장, 군수 후보 경선 대부분을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열리는 17일 이전에 치르고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는 여수와 무안 등은 18일 이후 경선을 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6일부터 경선일정에 들어가 이번 주에만 15개 지역의 경선을 치르는 등 오는 15일까지 도당 차원의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전남도당 경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을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전남도당 공심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경선 일정을 2~3일 연기하는 방

안을 중앙당과 논의해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강진·고흥·해남군수 경선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날 밤 열리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정 변경을 논의하더라도 빨라야 8일이나 경선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일정 변경이

통과되더라도 이같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2~3일 후 경선 일정에 틀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일정 연기가 도지사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박준영 전 전남지사 측은 전체적인 경선 일정을 일주일 이상 연기해줄 것을 중앙당과 전남도당 측에 요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명분은 천안함 사고에 따른 것이지만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가 도지사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준영

예비후보의 경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 가능성과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후보들이 낙마하면 도지사 경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이다.

물론 이석형·주승용 예비후보는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연기하려면 전남지사 후보 경선(17일)도 그만큼 연기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입장을 중앙당 측에 전달하기 위해 5일 밤 양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회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 기초단체 중 유일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순천시장 후보 경선을 '체육관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순천시장 후보 경선을 '당원 50%+시민 50%'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구성, 실내에서 직접 투표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의결했다. 또 선거인단 규모는 유권자의 0.3% 이상으로 하는 당규를 따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남도당이 다른 지역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는 조직동원 등 폐해를 우려해 체육관 경선을 단 1곳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중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되는 무안·여수, 단수 후보로 경선을 치르지 않는 영광·장성·장흥, 전략 공천하기로 한 신안 등을 제외한 15개 시·군을 전남원 여론조사와 주민여론조사 결과 각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기로 했다.

도당은 특히 이같이 결정하면서 체육관 경선은 '동원 및 금품 매수' 등 부작용이 우려돼 여론조사 방식을 준

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순천시장 경선방식이 체육관 경선으로 채택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인 서갑갑 의원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심위 회의에서도 서 의원은 김효석 전남도당위원장 등 공심위원들의 계속된 여론조사 도입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체육관 경선 도입을 고집해 이를 관철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 경선 방안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도당의 결정에 대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시장 측 관계자는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하나의 경선방법을 정해 광·장성·장흥, 전략 공천하기로 한 신안 등을 제외한 15개 시·군을 전남원 여론조사와 주민여론조사 결과 각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후보

방송 토론회 줄잇는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방송사에서 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경선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광주MBC는 오는 7일 밤 11시 5분~12시20분까지 공개홀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 초청 2차토론회를 생방송한다. '광주MBC토론회플러스' 시간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강은태, 이용섭, 정동채 후보가 참여한다.

또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 초청토론회는 박준영, 주승용, 이석형 후보가 참여해 오는 9일 밤 10시55분~12시40분, 14일 밤 12시40분~2시15분까지 각각 진행된다.

호남지역케이블TV협의회는

'우리 동네 클린선거 케이블TV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방송 체제에 돌입한다.

협의회는 ▲절차편 공정정보 ▲책임 있는 정책정보 ▲공공의 제 중심 보도 ▲지역주의 철저 배제 등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보도준칙도 최근 발표했다.

오는 6일 오후 1시에는 광주시 서구 치광동 CMB스튜디오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후보 토론회 방송을 실시하고, 13일 오후 1시부터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방송을 진행한다. 이 토론회방송은 KCTV·CMB·CBS에서도 동시 생방송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기초長 탈락자 재심은 어디서 하나

민주당 중앙당 심의기구 관여안해 ... 경선 차질 우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 앞서 실시된 후보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잇따라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심사할 재심위원회는 없어 경선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중앙당 공천심사재심위원회(위원장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는 광역단체장 경선과 시민배심원제 경선에 대한 사항만 의결하기로 돼 있을 뿐 기초단체장 이하 경선의 경우는 어떤 기구에서 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주 유 위원장 외에 우재창·정범구·전혜숙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재심위를 구성하고 재심 논의에 대비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현재 중앙당 공심위에서 기초단체장 경선 탈락자의 재심을 논의한다

는 방침이지만 후보 압축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중앙당 공심위가 재심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선 후보자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이정일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남평오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김성호·김원배 함평군수 예비후보 등이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정일·남평오 예비후보는 당 대표 표창에

대한 가점이 전체 점수의 10%를 차지한 반면, 광주시당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현신한 부분과 국가유공자 가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성호·김원배 예비후보는 20년 전 전과기록은 평가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17~19년 된 전과는 적용, 후보직을 박탈했다며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심 요청이 있을지 일주일 이 대개는데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중앙당은 뒤늦게 중앙당 공심위에서 이를 논의할 방침을 세웠지만 일부에서 반발, 아직까지 재심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무인텔 매각공고

- ◆ 대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 ◆ 특징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연락처 : 010-5614-1126

회사매각공고

-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